2020. 11. 20. (금) 언론보도

경인일보

2020년 11월 20일 (금)
02면 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초고속 '2단계 격상' 위기

1.5단계 첫날 전국 확진 343명

서울 107명·경기 59명 등 발생

200명이 기준… 현재 138.3명꼴

확산세 심각 신속한 대처 필요

서울·경기지역에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첫날부터 2단계로 추가격상이 언급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3명(지역발생 293명·해외유입 50명) 발생해 누적 2만9천654명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서울·경기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강화된 첫날이지만, 사흘째 300명대 확진을 이어가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선탁기획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 정도 돌파하는 게 2단계 기준"이라며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1.5단계 적용) 2주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황 변동을 즉각에 파악해 거리두기 상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서울 107명, 경기 59명 등 수도권에서만 177명이 나왔으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138.3명 꼴로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다. 비수도권에서도 116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8월 27일(121명)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같은 확산세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확진 속도와 질병 진단 비율이 매우 높다"며 "계절적인 요인을 비롯해 사회적인 영향, 질병 고유의 영향, 대응의 영향 등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1.5를 웃돌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확진자가 나온 안산시의 한 수영장과 관련해서도 이날 2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모두 15명이 이 수영장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수도권 동창 운동모임과 관련해 지난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에서 9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어났다.

인천에서는 남동구 가족·지인 관계인 7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누적확진자가 19명으로 파악됐으며, 송도동과 불로동, 청라동 학교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1천200명이 긴급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김상우기자 ksw@kyeongin.com

기호일보

2020년 11월 20일 (금)
02면 종합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31개 시군 지역협의회장들이 파주 임진각에 설치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임진각 집무실' 道 평화부지사에 성원 쇄도

개성공단 재개 선언 요청 관련
최종환 파주시장 등 현장 방문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등 지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며 지난 10월부터 파주 임진각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사회 각층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민통선 내 도라전망대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건부 동의를 했던 관할 군부대가 유엔(UN)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10일 파주 통일대교에서 이를 규탄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연 후 임진각에 임시 집무실을 만들었다. 이후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통일대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와 유엔사의 부당한 승인권 행사에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층의 지지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11일 최종환 파주시장을 시작으로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성공단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현장 집무실을 방문한 데 이어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 을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 지역협의회장이 지지를 발표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인천일보

2020년 11월 20일 (금)
01(경기판)면 종합

'개성공단 재개' 노력 각계각층 성원 쇄도

평화부지사 임진각 임시 집무실
도라전망대 무산 아쉬움 영향
민화협·민주평통 인사 등 찾아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 지지
유엔사 승인권 반대 활동 격려

오늘 평화 염원 콘서트도 열려

파주시 임진각에 임시설치된 경기도 평화부지사실의 모습. /연합뉴스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해 나선 경기도를 향해 각계각층의 격려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도가 평화를 향한 염원과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의 의미를 담고자 추진한 도라전망대 내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 운영이 무산된 데 따른 아쉬움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는 평화부지사의 현장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민통선 내 도라전망대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조건부 동의를 했던 관할 군부대가 유엔(UN)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10일 파주 임진각에서 임시 운영 중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현재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파주 임진각 임시 집무실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평화협력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통일대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와 유엔사의 부당한 승인권 행사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최종환 파주시장을 시작으로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성공단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잇달아 현장집무실을 방문했다.

또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31개 시군 지역협의회장이 지지를 발표하는 등 경기도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는 당초 계획대로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이 설치될 때까지 임진각 임시 집무실에서 관련 업무를 지속한다.

현장집무실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일 평화 집무실이 위치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경기아트센터 주관으로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기 위한 콘서트도 연다.

경기도립예술단 경기팝스앙상블이 '철망 앞에서', '아름다운 강산', '다이너마이트' 등을 연주하며 개성공단 재개와 평화를 기원하는 무대를 꾸민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아트센터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실황을 중계해 더 많은 이들이 평화를 향한 도의 염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행위가 아닌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고유행정행위"라며 "도가 우리 땅 도라전망대의 문부터 열고 개성공단의 문까지 여는 데 앞장서겠다. 각계각층의 성원과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남준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기호일보
2020년 11월 20일 (금)
13면 문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서 '개성 잇는 콘서트' 경기도예술단 등 무대

경기도가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설치·운영 중인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콘서트가 열린다.

도는 20일 오후 2~3시 임진각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 앞에서 '개성 잇는 콘서트'를 개최한다.

경기아트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콘서트는 경기도예술단인 경기팝스앙상블이 평화를 주제로 공연한다.

'철망 앞에서' 보컬을 비롯해 '아름다운 강산+인연', '다이너마이트', '퀸 메들리', '아리랑' 등 다양한 음악이 연주된다.

경기아트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말 텐트 10여 개가 설치된다.

도 관계자는 "콘서트가 개성공단 재개와 평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민통선 내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유엔사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설치가 무산돼 임진각에 집무실을 임시 운영 중이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중부일보
2020년 11월 20일 (금)
11면 문화

실학박물관, 비대면 설문조사 플랫폼 개발

태블릿 방식으로 조사 자료 취합

실학박물관은 주식회사 옐로우윈과 함께 비대면 설문조사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설문조사 플랫폼은 당초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의 수동적 취합방식에서 벗어나 태블릿 방식으로 관람객이 다양한 설문을 한눈에 확인함과 동시에 제출 된 설문은 자동으로 취합되는 형태로 업무적 수월성을 증대하고 관람객과 더 밀접한 소통을 통해 전시, 교육 등의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가능 하게 만들었다.

설문조사 플랫폼은 상설전시,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이벤트설문 등 4가지 매뉴로 구성돼 있으며 관람객은 간단한 터치방식으로 설문 응답 및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도 설문응답에 따른 간단한 랜덤방식의 카드게임(제시된 4가지 카드

를 선택)을 구성해 1장의 카드 선택 시 소정의 실학박물관 문화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에 따른 재미도 제공하고 있다.

실학박물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비대면 사회 전환으로 개인 간 불필요한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는 관람환경 속에서 설문조사 플랫폼의 활성화 통해 관람객의 의견이 전시, 교육을 비롯한 시설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항목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창현기자